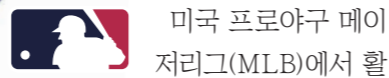


류현진, 내달 2일 '부활 피칭'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사진)이 14개월의 침묵을 깨고 빅리그 마운드로 돌아온다.

류현진은 한국시간으로 8월2일 오전 8시 7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2023 MLB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상대는 볼티모어 오리올스다.

류현진은 30일(한국시간) 홈구장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 실전 투구 훈련이었다. 류현진은 주전 포수인 대니 젠슨과 호흡했고 존 슈나이더 감독 등 코치진이 참관했다.

그는 볼펜 투구 후 현지 매체인 시웨이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선발 투수로 우리 팀

재활 14개월 끝내고 볼티모어전 홈 등판 "선발투수로 팀 승리 돕겠다" 이 악문 결의

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며 "내가 선발 투수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팀과 상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현진이 빅리그 경기에 등판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 이후 정확히 1년2개월 만이다.

당시 4이닝 5피안타 3실점 한 뒤 팔꿈치 통증을 느껴 강판한 뒤 "오늘 등판을 후회한다"고 했다. 류현진은 2022년 6월19일 왼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다.

재활의 길은 외롭고도 길었다. 류현진은 5월 볼펜피칭, 6월 라이브 피칭을 예정대로 소화했고 7월에는 마이너리그에서 네

차례 실전 등판을 치렀다. 22일에는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안타(2홈런)와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 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수술 후 가장 많은 85개를 던진 류현진은 직구 구속도 최고 시속 90.8마일(약 146km)까지 끌어 올렸다.

류현진은 25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원정길부터 토론토 동료들과 동행했고 다저스 타디움에서는 다저스 옛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또한 볼펜피칭을 하며 빅리그 복귀를 위한 최종 점검도 마쳤다.

류현진은 최근 스포츠넷 캐나다와 인터뷰에서 "등판할 때마다 구석이 오르고 있

다. 제구에도 만족한다"며 "체인지업, 커브, 커터의 각도 좋아지고 있다. 재활이 순조롭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2일 후회만을 남겼던 로저스센터 마운드에 류현진이 1년2개월 만에 다시 선다.

류현진의 볼티모어전 개인 통산 성적은 9경기 5승 1패 평균자책점 4.35다. 로저스센터에서는 13경기에 등판해 6승 5패 평균자책점 6.93으로 주춤했다.

2013년부터 빅리그에서 뛰던 류현진은 175경기(선발 174경기) 75승 45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 중이다. 이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176번째 등판이자 175번째 선발 등판을 준비한다.

류현진은 "선발 투수의 역할을 다시 해내고 싶다"며 "팀 승리에 공헌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여자축구 16강 진출 꿈 '물거품'

모로코에 0-1 패배... 세계 2위 독일과 3차전만 남아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패를 당해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조소현(왼쪽)이 30일 모로코와 2차전에서 상대 수비를 피해 공격을 펼치고 있다. 에틀레이드=연합뉴스

롤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FIFA 랭킹 17위)은 30일 호주 에틀레이드의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F 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최악의 평가받던 모로코(FIFA 랭킹 72위)에게도 0-1로 졌다. 25일 콜롬비아(FIFA 랭킹 25위)와 1차전에서 0-2로 패한 한국은 2패를 기록, 조 최하위가 됐다. 한국은 8월3일 오후 7시 호주 브리즈번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FIFA 랭킹 2위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초반 모로코의 공세에 흔들렸다.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다. 하나네 아이트엘 하지의 크로스에 이은 이브티삼 즈라이디의 헤더를 막지 못했다. 몸을 날린 즈라이디 머리에 맞은 공은 베테랑 골키퍼 김정미가 손을 쓸 수 없는 골망 구석에 꽂혔다.

한국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7분 박은선의 헤더로 시작된 이금민의 슈팅이 수비수

에 막혔고, 전반 20분 추호주의 슈팅은 골문을 벗어났다. 전반 26분에는 지소연의 크로스에 박은선이 몸을 던져 머리를 갖다댔지만 역시 빗나갔다.

벨 감독은 후반 최유리(인천현대제철), 문미라(수원FC)를 투입하며 공세를 폈지만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15분 조소현의 헤더, 후반 17분 이금민의 중거리 슈팅도 골문을 벗어났다.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끝내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다.

모로코는 아랍권 국가로는 사상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첫 골, 첫 승리를 기록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2026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대구서 연다

세계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2026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시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MA)과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첫 대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실내·실외 경기가 격년으로 개최된다.

대구시는 2017년에는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는 실내외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대구시는 2011년 8월 202개 국가의 194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국제육

2011년 IAAF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이은 쾌거



대구시와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은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상연맹(IAAF)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9일간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해 육상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35세 이상 참가자들이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등을 자부담으로 해 열리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

는 개최지에서 가족동반으로 여름휴가를 보내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26년 대회는 8월 중 14일간 90개국, 1만1000여 명이 참가해 트랙 19종목, 필드 11종목, 로드 6종목 등 36개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마지 정만 WMA 회장의 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은 참가자 모집 등 경기 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 및 SNS를 활용한 대회 홍보 지원, 참가자 체류 지원 등에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홍 시장은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가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올해 4월 대구 중구 동인동 기념공원에서 마스터즈 10km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마라톤 코스를 협력체 달리고 있다. 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